

# 사회적 범주화가 지역감정 형성에 미치는 영향\*

김 범 준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본 연구에서는 지역감정이나 편견이 발생하는 한 원인이 내외집단으로 범주화하는 사회적 범주화에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연구 1에서는 조사연구를 통하여 현재 우리 대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인상과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신의 출신지역 사람들을 타지역 출신자들보다 더 좋게 평가하였다. 이 같은 내집단에 대한 평가는 자존증감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정체감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연구 2에서는 출신지역을 이용한 내외집단 구분이 내외집단 정보에 대한 기억과 귀인, 그리고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내외집단 범주화에 의해 내외집단 정보에 대한 기억과 귀인, 내외집단에 대한 평가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후속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지역감정, 사회정체감, 내외집단, 고정관념

지역감정의 문제는 지난 십 수년동안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심리학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한국심리학회편, 1988). 그러나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지금까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지역감정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예를 들어 광주 YMCA의 연구에 의하면 영호남의 경우, 화합을 위한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호남지역 고교생 절반이상은 여전히 지역감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는 광주와 부산지역 남녀 고교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영호남지역에 지역감정이 현재도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광주지역 고교생 61.6%와 부산지역 고교생 53.6%가 '존재한다'고 답하였으며 '존재하지 않는다'는 학생은 광주지역 11.8%, 부산지역은 3.8%에 그쳐 어린 청소년들에게까지 여전히 지역 감정 문제가 깊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동아일보, 2001. 7. 30).

지역감정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측면을 강조하는 접근,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는 접근, 경제적 불평등을 강조하는 접근 등과 같이 다양하게 존재해왔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감정의 원인을 찾는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제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위에 제시된 영호남 청소년들에게서 보이는 지역감정의 원인을 규명한다고 할 때, 위에서 언급한 접근들은 명쾌한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 아직 어린 청소년들은 지역감정을 실제로 경험했을 가능성이 적다. 즉, 대부분 자신의 출신지역에서 생활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지역 출신자로부터 지역감정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이론이나 현실적 갈등이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자신들

\* 교신저자: 김범준(bjkim@psylab.yonsei.ac.kr)

논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의 활동이 출신지역 때문에 제한을 받거나 타지역 출신자와 경제적 이익을 놓고 경쟁하거나, 자원분배의 불평등을 경험했을 가능성도 극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청소년들조차 지역감정 혹은 지역편견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아마도 부모로부터의 학습, 혹은 다양한 대중매체의 역할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심리학에서는 그 가능한 설명의 한 틀로서 사회정체감이론을 제시하고 있다(안신호, 1988; 김혜숙, 1988).

#### 내외집단 범주화와 정보처리

사회정체감 이론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범주화하여 처리하는 사람들의 정보처리 현상에서 출발한다. 사람들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많은 정보를 모두 처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을 넘어서는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 같은 경우에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하나의 방법은 정보를 범주화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정보처리 과정상에서 다양한 개념적 범주와 사회적 범주를 사람들은 사용하지만, 사회적 자극을 처리하기 위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두드러진 전략은 자기를 중심으로 정보를 범주화하여 처리하는 경향이다(Higgins & Bargh, 1987; Kihlstrom, Cantor, Albright, Chew, Klein, & Niedenthal, 1988; Mackie & Hamilton, 1993). 이 같은 정보처리과정 때문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세계를 두 가지의 범주 즉 우리와 그들로 나눈다. 결국 사람들은 타인을 자신의 집단에 속하거나 다른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한 구분은 수많은 차원을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인종, 종교, 성, 종족성, 그리고 직업 등이 있다(Baron & Bryne, 1991).

사람들을 내외집단으로 구분하여 지각하면, 지각자는 집단에 대해 우호적/비우호적 기대(expectation)를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기대는 후속 정보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을 Perdue, Dovidio, Gurtman, 및 Tyler(1990)는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Perdue 등은 정보처리과정에서 입력되는 정보에 내외집단의 개념을 무의식적으로 연관시켰을 때 내외집단 범주에 의한 우호/비우호적 기대가 점화되며 이

같은 기대 때문에 이후 정보처리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그들은 내외집단에 관한 대명사('우리'와 '그들')를 컴퓨터화면에 극히 짧은 순간 비쳐주고(55msec) 피험자가 이러한 대명사를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대명사가 제시되었던 자리에 긍정 혹은 부정적인 형용사 특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외집단과 관련된 단어(they, they, 그리고 theirs)에 의해 점화될 때 보다 내집단과 관련된 단어(us, we, 그리고 our)가 제시된 이후에 긍정적 특질에 대한 결정을 더 빨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특질은 내집단보다 외집단과 관련된 단어가 제시되었을 때 더 빨리 처리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내외집단과 관련된 대명사들은 유사한 평가적 개념을 가지는 구조에 대한 상대적 접근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사회정보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보처리 과정상에서 '우리' 혹은 '그들'로 개인을 개념화하면 자동적으로 우리와는 긍정적인 기대가, 그리고 그들과는 부정적인 기대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같은 과정을 매개로 그 사람을 나타내는 구조의 개념이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편파된다는 것을 나타낸다(Dovidio & Gaertner, 1993).

내외집단 범주화의 효과는 내외집단관련 정보에 대한 기억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Howard와 Rothbart(1980)는 점 추정과제를 사용하여 피험자들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두 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의 정보처리과정을 살펴보았다. Howard와 Rothbart는 피험자들을 점 추정과제에 기초하여 내외집단으로 구분함으로써, 내집단 성원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기대를 외집단 성원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기대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차별적 기대가 피험자가 두 집단의 성원에 대한 행동정보를 파지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들은 피험자들로 하여금 내집단과 외집단 성원으로 묘사된 행동기술문들을 읽게 한 다음 재인하게 하였다. 그 결과 피험자들은 내집단 성원의 부정적인 행동보다는 외집단 성원의 부정적인 행동을 더 잘 기억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피험자들을 단순히 점추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하여도 정보처리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내/외집단으

로 구분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되면, 우리는 내집단에 대해서는 긍정적 용어로 묘사하는 반면에 외집단 성원들은 부정적으로 지각한다. 즉 외집단 사람들은 내집단의 구성원보다 바람직하지 않은 특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각되고 서로 동질적인 것으로 지각되며 흔히 미움을 강하게 받는다(Linville, Fischer, & Salovy, 1989; Schaller & Mass, 1989; Wilder, 1986). 이러한 내집단 편애(ingroup favoritism)는 집단간 평가에서도 나타나는데 특히 자원을 집단간에 할당하게 하는 경우에 잘 나타난다. 피험자들은 자원할당을 할 때 외집단보다는 내집단에 대해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한다(Turner, 1983).

### 사회정체감 이론

내집단 편애현상이 내외집단으로 구분하는 것만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동기적 측면에서 제공한 이론이 바로 사회정체감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이다. Rabbie와 Horwitz(1969)의 연구에 근거하여 Tajfel과 그의 동료들은(Tajfel, 1970; Tajfel, Billig, Bundy, & Flament, 1971) 점 추정 과정을 통해 집단을 구분하였다. 그들은 내외집단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모르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상호작용하지 않고, 집단 범주화의 근거가 반응측정과 아무런 연계성이 없으며, 그리고 피험자의 선택이 피험자 개인의 이익/손실과 무관한 조건을 만들고,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피험자들이 내외집단성원에게 보상을 나누어 줄 때, 외집단에 비해 내집단에 대하여 편파된 차별반응을 나타냈다. Tajfel(1982)은 이러한 내외집단에 대한 차별은 개인이 자신을 어떤 구체적인 사회집단과 동일시하여 자존감을 고양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우리는 범주정보에 근거해 집단을 형성하고 이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자신의 정체감의 일부를 형성한다. 따라서 자신의 집단을 타집단과 구분해서 타집단과 다르다고 지각하거나 더 호의적으로 지각한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호의적 정체감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동기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Tajfel, 1982; 김혜숙, 1988).

사회정체감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개인들이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동기화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론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자

아정체감의 한 부분은 개인이 어떤 집단에 속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은 집단적 맥락에서 지위가 높은 집단에 속하려는 동기가 있음을 가정한다. 또한 사회정체감이론에서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속한 집단이 그들에게 뚜렷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정체감을 제공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자신의 집단과 다른 집단간의 사회적 비교를 실시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정적인 사회적 정체감을 얻게 되면 불만족이 생기게 된다고 가정한다.

초기 연구들은 사회정체감의 개념을 주로 개인의 자아존중감(self-esteem)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연구들에 의하면 개인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특히 개인적 자아개념이 실제로 혹은 가상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아를 향상시키거나(self-enhancing) 자아를 고양시키는(self-serving) 환상, 편파, 혹은 왜곡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Taylor & Brown, 1988, for a review). 예를 들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보다 성공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려고 하고 실패에 대한 책임을 더 피하려고 한다(Tennen & Herzberger, 1987). 또한 몇몇 연구들은(Lemyre & Smith, 1985; Oakes & Turner, 1980) 최소집단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차별행동을 할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차별할 기회를 가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고양되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내집단 선호적 차별행위가 실제로 성원의 자존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이종숙, 1991; 한규석, 1995 재인용).

사회정체감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긍정적 자아정체감의 획득은 자신이 속한 내집단과 자신이 속하지 않은 외집단과의 사회비교를 통해 외집단에 비해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적 독특성 확보를 통해 가능하다. 심리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활동은 내외집단에 대한 평가와 차별 그리고 정보에 대한 판단 등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면, 내집단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거나 더 많은 양을 분배하려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이 같은 활동은 정보에 대한 판단 즉, 귀인성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긍정적인 행동과 성공적인 결과들은 외집단성원에 비해 내집단성원의 경우에 내적, 안정적인 특성으로 귀인 시키려는 경향이 크다(Hewstone, Jaspers, & Lalljee, 1982; Taylor & Jaggi,

1974). 그리고 사고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 집단성원에서 보다는 외집단성원인 경우에 더 성격적인 속성으로 귀인시키는 경향이 있다(Hwestone, Bond, & Wan, 1983; Wang & McKillip, 1978).

외집단에 비해 내집단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활동은 정보처리 과정상에서도 나타난다. 송관재(1992)는 내집단 편애 동기가 정보처리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는 피험자를 출신지역별로 구분하고 그들의 집단소속감으로 인한 내집단 선호도가 집단에 관한 정보처리 및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자신의 출신지역은 내집단으로 하고 자신의 출신지역이 아닌 지역을 외집단으로 하여 내외집단을 조작하였다. 피험자들에게는 자극문장이 주어 졌는데 자극문장에는 바람직한 문항과 바람직하지 않은 문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내집단 편애동기에 따른다면, 피험자들은 집단소속감에 따른 동기적 영향으로 인해 자신이 속한 집단구성원이 한 것으로 기술된 바람직한 행동기술문과 외집단의 구성원이 한 것으로 기술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기술문을 더 잘 기억해야만 한다.

연구결과는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였다. 그의 연구는 집단소속감이 정보의 재인, 기억 및 정보처리에 따른 집단간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즉, 어떤 정보 유형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었다. 연구결과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수 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은 소수집단의 부정적인 행동기술문을 더 잘 기억하였고 소수집단의 피험자들은 소수집단의 긍정적인 행동기술문을 더 잘 기억하였다. 즉 피험자가 다수집단에 속하느냐 소수집단에 속하느냐에 따라 정보처리가 달라졌다. 이같은 결과는 피험자들의 동기적인 요인에 따라 처리되는 정보의 유형이 달라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인지적 요인인 착각상관과 내외집단이라는 동기적 요인이 혼합된 연구이므로 착각상관의 영향을 배제한 실험설계를 통해 순수하게 내외집단 상황에서 동기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정보처리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그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침해하게 대립된 두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좀 더 폭 넓게 지역감정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면 모든 지역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연구를 통해 좀 더 일반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감정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실험실 연구가 어렵다는 연구문제의 특성 때문에 주로 상관 혹은 설문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몇몇 연구가 직접적으로 지역감정의 문제를 실험적으로 다루기는 했지만(예를 들어 송관재(1992)와 홍영오, 이훈구(2001)의 연구), 실험의 특성상, 우리 나라 전 지역 중 대표적 지역갈등 지역인 경상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최근 10년간에 걸쳐 우리 나라에서 지역감정의 문제는 경상도와 전라도만이 아니라 충청도 등 여타지역 역시 갈등의 소용돌이 위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역 전체에 대한 좀 더 폭 넓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실험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외집단의 구분이 내외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차별적으로 처리하여 지역에 대한 편견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개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1에서는 상관연구를 통해 현재 지역감정의 실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사회정체감 이론에서 제시한 것처럼 자아 존중감이 지역감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 2에서는 지역에 대한 편견이 내외집단 편파에 의한 차별적 정보처리와 평가의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고찰하였다.

## 연구 1

### 방법

#### 조사 대상

서울시내 소재의 A, B, 그리고 C 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학생 524명(남자: 378명, 여자: 1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학생들을 출신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39명, 경기도, 20명, 강원도 8명, 충청도 43명, 경상도 139명, 전라도 56명, 제주도 9명, 그리고 기타 10명이었다.

#### 조사내용

본 조사에서는 각 지역에 대한 지역감정의 정도, 자아존중감 척도, 그리고 개인적 배경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각 지역에 대한 지역감정의 정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첫 번째, 각 지역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송관재와 이훈구(1991)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표적집단의 인상과 관련된 특질로 밝혀진 형용사 특질 중 9의 형용사 특질(인자한, 착한, 이해심이 있는, 친절한, 성실한, 차가운, 이기적인, 치사한, 인간적인)을 사용하였으며 9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예: 전혀 인자하지 않다 --- 매우 인자하다). 두 번째, 각 지역 사람들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 그리고 강원도 사람 등 우리 나라 7개 지역사람들을 제시하고 좋아하는 순서로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이하 자존감)은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10개 문항을 4점 척도(매우 그렇다 -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 결과 및 논의

#### 전체 응답자 분석

각 지방사람들에 대한 인상평가점수는 제시한 9개 형용사 특질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클수록 그 지방사람들에 대한 인상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각 지방사람들 중 응답자들에게 가장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지방은 평균점수가 6.18(표준편차: 0.98)인 충청도 사람들이었다. 다음으로는 강원도 출신 사람들(평균: 6.07; 표준편차: 0.93), 제주도 출신 사람들(평균: 5.91; 표준편차: 1.00), 경기도 출신 사람들(평균: 5.49; 표준편차: 0.85), 경상도 출신 사람들(평균: 5.48; 표준편차: 1.07), 그리고 전라도 출신 사람들(평균: 5.35; 표준편차: 1.14)의 순이었으며, 가장 인상이 좋지 않은 지방은 서울로서 평균이 4.63(표준편차: 0.99)이었다. 충청도 사람들에 대한 인상이 좋게 나온 결과는 충청도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이 비교적 다른 지방에 비해 부정적인 특성을 적게 가지고 있다거나 그들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호의적이라는 기존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하겠다(김혜숙, 1988; 민경환, 1988; 안신호, 1988). 그렇지만 인상평가가 가장 좋지 않은 지방이 서울사람들이라는 것은 의외의 결과였다. 이같은 결과에 대한 가능한 하나의 해석

은 제시되었던 형용사를 이용한 척도의 내용이 비교적 서울 지방의 좋지 않은 고정관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척도에서 사용된 내용 중 차갑다, 이기적이다 등은 냉정하다, 약다, 인색하다 등의 서울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것이다(민경환, 1988).

상대적으로 어느 지방사람을 더 선호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지방 사람들을 좋아하는 순서에 따라 순위를 매기도록 하고 이 순위의 평균점수를 반복측정 변량 분석으로 차이검증을 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sup>1)</sup>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그 결과는 앞에서 제시한 각지방사람들에 대한 인상평가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즉, 인상평가와는 달리 서울 사람들(평균: 2.72; 표준편차: 2.04) 을 가장 좋아했으며, 다음으로 역시 충청도 사람들(평균: 3.45; 표준편차: 1.58), 경상도 사람들(평균: 3.46; 표준편차: 2.14), 경기도 사람들(평균: 3.66; 표준편차: 1.68), 강원도 사람들(평균: 4.24; 표준편차: 1.57)의 순이었으며 가장 좋아하는 순위가 낮았던 지방은 평균이 5.00으로 전라도 사람들(표준편차: 2.10)과 제주도 사람들(표준편차: 1.69)이었다.

이 결과는 우리 나라의 지역감정 문제가 다분히 전라도와 다른 여타지역의 문제라는 기존의 연구들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김진국, 1988; 김혜숙, 1988; 안환기, 1999). 그렇지만, 제주도 지방사람들에 대한 결과는 상당히 의외였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설문 참여했던 응답자 중 일부에 대한 후속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질문을 본 순간 먼저 자신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지방사람들에 대한 응답을 하였고 그 결과 마지막에 주로 남게 되는 지방이 두 지방이었던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제주도의 경우,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지역문제를 생각할 때 제주도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 유추할 수 있다. 이 같은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1) 이 결과는 순위척도를 사용하여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비모수 통계를 이용하여 결과를 분석해야하지만 그 경우, 너무 많은 표를 제시해야함으로 척도변환을 통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비모수 통계를 실시한 결과, 변량분석의 결과와 차이가 없었다.

표 1. 각 지방사람들에 대한 인상평가 점수와 표준편차(출신지역별)

출신지역	지 역							F값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서울 평균 (n=223)	<b>4.71</b>	5.50	6.04	6.05	5.34	5.14	5.90	F(6, 1332)=72.78***
표준편차	0.97	0.87	0.95	1.02	1.11	1.18	1.01	
경기 평균 (n=18)	4.35	<b>5.60</b>	6.25	6.12	5.26	5.32	5.71	F(6, 102)=10.36***
표준편차	1.16	0.75	0.86	1.05	0.64	0.75	1.26	
강원 평균 (n=7)	4.13	5.78	<b>7.02</b>	6.81	5.33	5.24	6.32	F(6, 36)=6.80***
표준편차	1.69	0.71	1.06	0.60	0.94	1.30	0.85	
충청 평균 (n=39)	4.35	5.33	5.97	<b>6.54</b>	5.05	5.13	5.83	F(6, 228)=26.67***
표준편차	0.92	0.96	0.99	0.96	1.00	1.13	0.91	
경상 평균 (n=127)	4.65	5.53	6.21	6.26	<b>6.04</b>	5.37	5.92	F(6, 756)=64.04***
표준편차	0.92	0.88	0.83	0.96	0.91	1.01	0.95	
전라 평균 (n=56)	4.56	5.36	5.81	6.25	5.22	<b>6.15</b>	5.96	F(6, 330)=27.49***
표준편차	1.10	0.63	0.96	0.85	0.99	1.03	1.13	
제주 평균 (n=8)	5.03	5.42	5.94	5.93	5.53	5.64	<b>6.18</b>	F(6, 42)=2.24
표준편차	0.84	1.05	1.12	0.74	0.37	0.85	0.70	
기타 평균 (n=7)	4.48	5.81	5.64	<b>6.40</b>	5.49	5.94	6.14	F(6, 36)=2.26
표준편차	1.03	0.76	0.74	0.85	1.58	0.80	1.30	
전체 평균 (n=487)	4.63	5.49	6.07	<b>6.18</b>	5.48	5.35	5.91	F(6, 2916)=177.02***
표준편차	0.99	0.85	0.93	0.98	1.07	1.14	1.00	

\*\*\* p<.001

응답자의 출신지역별 분석

각 지역사람들에 대한 인상의 정도를 출신지역별로 알아본 결과가 역시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서울 사람들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전체의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여 서울 출신 사람들을 가장 좋지 않게(평균: 4.71; 표준편차: 0.97) 평가한 반면에 역시 충청도 출신 사람들을 가장 좋게(평균: 6.05; 표준편차: 1.02) 평가하였다. 다른 지역출신자들 역시 모두 서울 출신 사람들을 가장 좋지 않게 평가했다. 경기도 출신자는 강원도 출신 사람들을, 경상도 출신자들은 충청도 출신 사람들을 가장 좋게 평가했지만, 다른 지역 출신자들은 자신의 출신지역 사람들을 가장 좋게 평가했다. 또한 모든 지역 출신자들이 자신의 출신 지역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전체 집단의 인상평가보다 좋은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사회정체감이론에 말하는 내집단 편파 현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어느 지방사람을 더 선호하는가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앞에서 언급한 인상평가 방식에서는 자신의 출신지역을 가장 좋지 않게 평가했던 서울 출신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지방 출신자들이 자신의 출신 지역사람들을 가장 좋아한다고 응답하였다(표 2 참조). 이에 반해 선호순위가 가장 낮은 지방은 전라도 출신자들과 제주도 출신자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 출신자들이 전라도 지역을 선호순위에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이에 반해 전라도 출신자들은 경상도 지방 출신자들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제주도 출신은 강원도 지방 출신자들을 선호순위에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이것은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우리 나라의 지역감정이라는 것이 전라도와 경상도 나아가 전라도 대 여타 지방의 문제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김만흠, 1987; 김용학, 김진혁, 1990; 김진국, 1988; 김혜숙, 1988; 안완기, 1999).

표 1의 지역에 대한 인상평가 점수에서 볼 때, 앞에서 지적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서울에 대한 인상평가 점수가 좋지 않았으며 강원도 출신자와 충청도 출신자

표 2. 각 지방사람들을 좋아하는 우선 순위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출신지역별)

출신지역	지 역							F값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서울 평균 (n=221) 표준편차	<b>1.67</b> 1.40	3.53 1.75	4.21 1.52	3.62 1.48	4.09 1.93	5.34 1.90	5.02 1.73	F(6, 1320)=102.40***
경기 평균 (n=20) 표준편차	3.25 1.77	<b>1.95</b> 1.23	3.95 1.79	4.25 1.71	3.85 1.79	5.65 1.84	5.25 1.52	F(6, 114)=9.03***
강원 평균 (n=6) 표준편차	4.50 1.64	4.67 1.03	<b>2.00</b> 2.00	3.33 2.06	3.33 2.06	6.00 1.27	4.17 2.04	F(6, 30)=2.61*
충청 평균 (n=37) 표준편차	3.19 1.85	3.43 1.66	3.87 1.69	<b>1.54</b> 0.90	4.35 1.92	5.54 1.59	4.92 1.50	F(6, 216)=23.21***
경상 평균 (n=123) 표준편차	3.76 2.06	4.06 1.49	4.29 1.51	3.52 1.47	<b>1.37</b> 0.98	5.37 1.76	5.33 1.46	F(6, 732)=81.21***
전라 평균 (n=48) 표준편차	4.02 2.37	4.04 1.51	4.63 1.44	3.79 1.71	5.00 1.97	<b>1.58</b> 1.13	4.65 1.70	F(6, 282)=17.73***
제주 평균 (n=7) 표준편차	3.29 2.06	3.57 1.27	5.57 1.81	3.71 1.25	4.14 1.46	4.71 2.13	<b>1.57</b> 1.51	F(6, 36)=3.72**
기타 평균 (n=9) 표준편차	2.56 1.33	3.33 1.73	4.67 1.73	<b>2.33</b> 1.00	3.78 1.99	5.78 1.20	4.78 1.92	F(6, 48)=4.48**
전체 평균 (n=473) 표준편차	<b>2.72</b> 2.04	3.66 1.68	4.24 1.57	3.45 1.58	3.46 2.14	5.00 2.10	5.00 1.69	F(6, 2832)=90.08***

\* p<.05, \*\* p<.01, \*\*\* p<.001

에 대한 인상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출신지역별로 볼 때, 서울,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출신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출신지역 사람보다 강원도와 충청도 출신자들을 더 좋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오직 강원도와 충청도, 그리고 제주도 출신자들만이 자신의 출신지역을 가장 좋게 평가하였다. 이것은 사회정체감 이론에서 예언하는 결과와는 상충되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후속연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밝혀야겠지만, 가능한 하나의 원인을 고정관념의 영향에서 찾을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한국심리학회, 1988),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 중 강원도와 충청도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은 비교적 호의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한다면, 본 연구 1에서는 고정관념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의외의 결과가 고정관념의 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이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고정관념의 영향을 통제하는 실험설계를 통해 보다 정확한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지역감정의 문제를 사회정체감이론의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 자존감과 내외집단 편파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내외집단 편파의 정도는 자신의 출신지역 사람들에 대한 인상평가와 선호도 순위 점수와 상대 지역 출신 사람들에 대한 인상평가와 선호순위 점수의 차이로 알아보았다. 먼저 기타 출신자를 제외한 모든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내집단은 자신의 출신지역을, 외집단은 자신의 출신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들에 대한 평가의 평균치를 외집단에 대한 인상과 선호도 점수로 사용하였다. 기타 출신자를 제외시킨 것은 이들에게는 특별히 내집단이라고 설정할 지역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존감과 내외집단에 대한 인상평가점수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r = .122$ 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 = .05$ . 그리고 내외집단에 대한 인상평가점수와 내외집단에 대한 선호순위점수간에는  $r = -.232$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 < .001$ . 자존감과 내외집단에 대한 선호순위점수간의 상관 관계가 통계적으로는 유의

미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한 가능한 하나의 해석은 본 분석에서 사용한 외집단에 대한 점수가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전체 외집단에 대한 각 점수의 평균이기 때문에 편파의 효과가 경감되었을 수 있다. 이 같은 가능성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 우리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지역갈등을 보이는 전라도와 경상도 출신자들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3. 자존감, 내외집단에 대한 인상평가의 차이, 선호순위의 점수의 차이들의 상관<sup>1)</sup>

	V1 <sup>2)</sup>	V2	V3
V1	1.000		
V2	.232**	1.000	
V3	-.014	-.426***	1.000

\*\*  $p < .01$ , \*\*\*  $p < .001$

1) 위의 결과는 경상도 출신자( $n=139$ )와 전라도 출신자( $n=56$ )들만을 비교한 것임.

2) V1: 자존감 점수

V2: 내외집단에 대한 인상평가점수의 차이

V3: 내외집단에 대한 선호순위 평균점수의 차이

그 결과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자존감과 내외집단에 대한 인상평가점수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r=.232$ 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었다,  $p < .01$ . 그리고 내외집단에 대한 인상평가점수와 내외집단에 대한 선호순위점수간에는  $r=-.426$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 < .001$ . 인상평가에서의 편파 정도와 선호순위에서의 편파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선호순위의 경우, 낮은 점수일수록 선호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인상평가의 경우에는 점수가 높을수록 인상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부호화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보이고 있는 지역감정 현상을 사회정체감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그 근간에 자존감을 고양시키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간접적 보여준다. 그러나 자존감과 내외집단에 대한 선호순위점수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 연구 2

앞의 연구 1에서는 설문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이 자

신의 출신지역인 내집단을 여타 지역에 비해 더 좋게 평가하고 내집단 출신자들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내집단에 대한 인상 평가는 사회정체감 이론에서 제시한 것처럼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지만, 연구 1이 상관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감정 특히 연구 1에서 밝혀진 자신의 출신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선호가 내외집단의 범주화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연구 2에서는 실험 연구방법을 통해 직접적인 검증을 시도하였다.

내외집단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단순한 내외집단구분에 의해서도 내외집단에 대한 평가와 내외집단성원에 대한 자원을 차별적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홍기원, 2000; Brewer, 1979; Tajfel, 1982). 그러나 내외집단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즉 일반적으로 정보처리 관점에서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정보와 불일치하는 정보가 어떻게 기억되고 평가되는가 하는 연구는 많지만, 실제로 내외집단에 대한 정보가 편파적으로 입력되어 저장되고 평가·판단된다는 정보처리과정을 자세히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Brewer, 1979; Brewer & Kramer, 1985; Howard & Rothbart, 1980; Messick & Mackie, 1989). 특히 이 내외집단 상황을 직접 우리 지역문제에 접목하여 실험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많지 않다. 또한 지역감정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있지만, 우리 나라 지역 전체를 내외집단 상황에서 살펴본 실험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모든 지역을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설정하고 지역 정보가 내외집단 편파동기에 의해 어떻게 선택적으로 처리되는가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내외집단 편파동기에 의해 정보처리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지역에 대한 편파된 고정관념이 형성·유지되는 하나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Tajfel 등(1971) 사회정체감 연구자들은 내외집단 범주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내외집단 편파현상을 주로 최소 집단 패러다임을 통해 살펴보았다. Tajfel(1978)은 이 같은 차별현상은 개인들이 긍정적 자아정체감 즉, 집단 정체감(social identity)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동



기화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주장이 맞다면, 내외집단 편파현상에 따라 내집단(자신의 출신 지역)과 외집단(타지역)에 관한 차별적 정보처리와 정보에 대한 판단 및 평가가 발생할 것이다.

이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2에서는 자신의 출신지역을 내집단으로, 자신의 출신이 아닌 지역 중 한 곳을 외집단으로 설정했으며, 내외집단에 대한 바람직한 정보와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를 동수로 제시하고 내외집단정보의 기억, 판단, 그리고 내외집단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았다. 내외집단에 관한 바람직한 정보와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를 접하게 된다면 우리는 내외집단 편파동기에 의해 정보를 선택적으로 처리하고 평가하게 된다. 즉, 외집단에 비해 내집단을 더 좋게 평가하고, 집단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정보를 집단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정보보다 더 잘 기억하며, 집단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행동에 비해 집단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행동을 더 기질적으로 귀인할 (즉 내부 귀인) 것이다.

연구 2의 구체적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내외집단에 대한 평가**

가설 1: 외집단에 비해 내집단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2) 정보에 대한 기억**

가설 2-1(자유희상): 집단의 유형과 정보유형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것이다. 즉, 내외집단관련 정보의 기억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내집단의 비바람직한 정보에 비해 내집단의 바람직한 정보를, 외집단의 바람직한 정보에 비해 외집단의 비바람직한 정보를, 외집단의 바람직한 정보에 비해 내집단의 바람직한 정보를, 그리고 내집단의 비바람직한 정보에 비해 외집단의 비바람직한 정보를 더 많이 기억할 것이다.

가설 2-2(빈도추정): 외집단에 비해 내집단의 바람직한 정보를 더 많이 추정할 것이다.

**(3) 정보에 대한 귀인**

가설 3: 집단의 유형과 정보유형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것이다. 즉, 내집단의 비바람직한 정보에 비해 내집단의 바람직한 정보를, 외집단의 바람직한 정보에 비해 외집단의 비바람직한 정보를, 외집단의 바람직한 정보에 비해 내집단의 바람직한 정보를, 그리고 내집단의 비바람직한 정보에 비해 외집단의 비바람직한 정보를 더 기질적으로 귀인할 것이다.

**방법 및 절차**

**피험자**

H대학교와 Y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으로 H대학생 52명(남: 28명/여: 24명)과 Y대학생 61명(남: 40명/여: 21명)이 학점이수의 조건으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피험자들을 출신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47명, 경기도 4명, 강원도 2명, 충청도 8명, 경상도 36명, 전라도 13명, 그리고 제주도 3명이었다.

**실험설계**

2(집단의 유형: 내집단/외집단) × 2(정보의 유형: 바람직한 정보/비바람직한 정보)의 요인설계로 두 독립변수 모두 집단내 변인이었다.

**내외집단**

컴퓨터로 실험을 시작할 때 피험자의 출신지역과 부모의 출신지역을 입력 받은 후 피험자의 출신지역을 내집단으로 피험자와 연관이 없는 지역을 무선적으로 할당하여 외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각 출신지명 중 내집단의 명칭으로 사용된 횟수는 앞에서 언급한 피험자들의 출신지별 분포와 동일하며 외집단으로 사용된 횟수는 서울 16회, 경기도 1회, 강원도 7회, 충청도 8회, 경상도 21회, 전라도 59회, 그리고 제주도 1회였다.

**자극재료**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행동기술문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기술문을 사용하였다. 이들 행동기술문은 기존

연구들(박수애, 1991; 송관재, 1992; 조지선, 1992; 홍영오, 1991)에서 이미 사용한 것들 중 자유회상을 위해 회상가가 비슷한 24개의 문항(바람직한 행동기술문 12개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기술문 12개)을 선정하였다. 각각 12개의 행동 기술문은 6개씩 회상가가 비슷하도록 묶어 내외집단에 동등하게 배당되도록 무선적으로 할당하였다.

### 종속측정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평가:**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평가는 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0점에서 100점까지의 점수 중 자신이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자유회상:** 다음과 같은 지시문을 주고 행동기술문을 회상하도록 하였다.

여러분은 조금 전에 실험자가 화면을 통해 제시해 준 행동기술문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았던 행동기술문을 기억하는 대로 적어 주십시오. 정확한 문장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대강의 의미만이라도 기억나는 모든 것을 나누어 준 용지에 적으십시오.

**빈도추정:** 회상하고 난 후 각각의 내외집단에 대한 12개의 행동기술문 중 바람직한 행동기술문의 빈도를 추정하도록 하였다. 자유회상과 빈도추정 중 어느 것을 먼저 측정하였는가가 자유회상과 빈도추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순서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피험자의 반에게는 자유회상을 먼저, 나머지 반에게는 빈도추정을 먼저 측정하였다.

**회상정보에 대한 귀인:** 피험자들이 회상한 내집단과 외집단 정보 각각에 대하여 그 행동이 매우 기질적인 요인이라고 보는가(1) 아니면 매우 상황적인 요인이라고 보는가(9) 하는 것을 평정하도록 했다(9점 척도).

### 실험 장치

몇 가지 지시문과 자극은 PC(IBM 호환기종인 펜티엄 이상의 기종)를 통해 제시했다. 진행을 위한 프로그램은

C++언어를 사용했다.

### 절차

본 실험 1은 보통 3-6명씩 집단으로 실시했으나 피험자가 불참하는 경우 1-2명씩 실시되었다. 피험자들이 도착하면 개인마다 PC앞에 앉게 하고 다음과 같은 지시문이 제시되었다.

본 실험은 사람들이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군인, 국회의원, 특정 대학의 학생들, 그리고 노동자 등과 같은 실제 집단들 중 두 집단의 구성원들이 했던 행동을 기술한 문장이 제시될 것입니다. 화면에 제시된 행동들은 일정기간 특정 두 집단구성원들의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화면에 제시되는 행동들은 각기 다른 사람이 행동한 것입니다.

의문 사항이 있는가를 점검한 후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아래의 지시문을 계속 제시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화면에 제시되는 두 출신 지역의 대학교 학생들이 했던 행동을, 보고 두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모두 본 후, 여러분에게 그 집단의 특성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문장을 다 보고 다음 문장을 보기 위해서는 키보드의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화면에 다음 문장이 나타날 것입니다. 행동기술문은 한 문장씩 화면의 중앙에 제시될 것입니다.

모든 피험자가 실험에 대하여 이해하고 나면 행동기술문을 보도록 한다. 연습시행을 실시하여 컴퓨터 조작에 익숙하도록 했다. 연습시행에 사용된 문장은 10개의 행동기술문으로 되어 있으며 "어떤 지역출신자인 누가 어떤 행동을 했다(예: A 출신자인 철수는 아침에 빵을 먹었다)"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습시행 후 다시 한 번 실험의 목적과 정보를 보는 방법에 대하여 확인한 후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이 끝나고 나면 무선적으로 제시된 네자리 숫자로부터 4씩을 빼는 방해과제를 3분 동안 실시하고 집단에 대한 평가, 자유회상, 빈도추정, 그리고 귀인 등의 종속측정을 하고 사후설명

을 실시하고 실험을 끝냈다.

### 결과 및 논의

#### 내외집단에 대한 평가

내외집단에 대한 인상을 100점 만점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점수가 크면 인상이 좋은 것이다). 그 결과 내집단을 외집단에 비해 더 좋게 평가하였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103)=10.45, p<.001$ . 즉,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내집단에 대한 평가의 평균이 70.76(SD: 13.49), 외집단에 대한 평가 평균이 55.32(SD: 12.45)로 외집단보다 내집단을 더 좋게 평가했으나 외집단에 대한 평가가 절반인 50점 이상으로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평가보다는 내집단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내외집단에 대한 차별적 평가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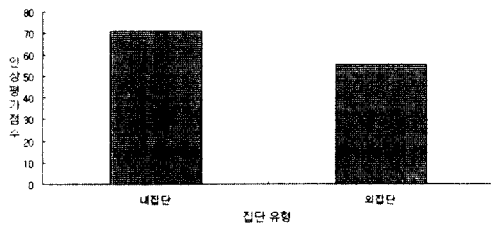


그림 1. 내외집단에 대한 평가

#### 정보에 대한 기억

정보에 대한 기억은 2개의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두 측정치간의 순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각 측정치와 순서효과간의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자유회상의 경우, 순서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순서 주효과:  $F(1, 111)=0.34, p=.563$ ; 순서와 집단유형과 정보유형간의 상호작용효과:  $F(1, 111)=0.22, p=.638$ ). 또한 빈도추정 역시 순서의 주효과와 순서와 집단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제시 순서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순서 주효과:  $F(1, 108)=0.76, p=.384$ ; 순서와 집단유형간의 상호작용효과:  $F(1, 108)=0.10, p=.755$ ).

내외집단 범주화가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자유회상의 경우, 집단의 유형(내집단/외집단)과

정보의 유형(바람직한 정보/비바람직한 정보)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은 지지되지 않았다,  $F(1, 112)=0.45, p=.503$ .

또 다른 기억측정치인 빈도추정에 관한 가설 2-2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평균치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가 지지되었다,  $t(109)=4.19, p<.001$ . 즉, 그림 2에 제시된 것처럼, 외집단에 대한 바람직한 정보(평균: 6.25회; SD=1.60)보다 내집단에 대한 바람직한 정보(평균: 6.93회; SD=1.40)가 더 많이 제시되었던 것으로 빈도를 추정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과 타 집단에 대한 바람직한 정보와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가 두 집단 모두에게 동 수로(각각 6개씩, 두 집단 모두 12개의 정보가 제시되었음) 제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한 내집단이 더 좋은 집단이라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 외집단에 비해 자신이 속한 내집단에 대한 바람직한 정보가 더 많이 제시된 것으로 왜곡된 기억을 갖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내외집단 편파동기가 내외집단과 관련된 정보처리를 왜곡시켜 자신의 출신지역이 매우 좋고 정당한 집단이라는 자기 지역에 대한 편파된 고정관념을 자동적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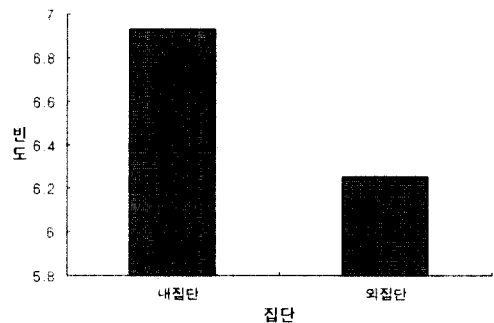


그림 2. 내외집단에 대한 바람직한 정보의 빈도추정

#### 정보에 대한 귀인

주어진 정보에 대한 판단이 내외집단편파동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주어진 정보에 대

한 귀인 양식을 알아보았다. 주어진 정보는 각 조건마다 6개로 총 24개였으나 본 실험에서는 자유회상에서 회상된 정보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개인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귀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귀인은 주어진 정보의 행동이 행위자의 기질적 원인 때문인지 아니면 상황적인 원인 때문인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척도가 매우 기질적 요인인 경우 1점, 매우 상황적 요인인 경우 9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귀인 점수가 낮을수록 정보를 피험자가 기질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내외집단 정보에 대한 귀인(N=77)

내 집 단		외 집 단	
바람직	비바람직	바람직	비바람직
4.22 <sup>a</sup>	5.31 <sup>b</sup>	5.09 <sup>b</sup>	5.01 <sup>b</sup>
(2.02)	(2.12)	(2.01)	(2.37)

( )의 숫자는 표준편차임.

위첨자가 다른 경우 평균치의 차이가 유의미함.

값이 클수록 정보를 상황적으로 귀인했다는 것을 의미함.

먼저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집단의 유형(내집단/외집단)과 정보의 유형(바람직한 정보/비바람직한 정보)간의 반복측정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이 지지되었다,  $F(1, 76)=6.07, p<.05$ . 각 평균치간의 구체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ukey방식을 이용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내집단의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평균: 5.31)와 내집단의 바람직한 정보(평균: 4.22)간의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평균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즉, 내집단의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에 비해 내집단의 바람직한 정보를 더 기질적으로 귀인함으로써 내집단 성원들을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집단의 유형에 따른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정보의 유형에 따른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F(1,76) = 6.17, p < .05$ ,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에 비해 바람직한 정보를 더 기질적으로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내외집단에 대한 좋은 정보와 좋지 않은 정보가 동등하게 우리의 기억상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의 의도 혹은 행위의 원인에 대한 편파된 귀인을 통해 내외집단에 대한 편파된 고정관념이 형성, 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 같은 정보처리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대한 편파된 고정관념을 자동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게 된다.

개별정보에 대한 판단상의 편파가 내외집단간의 비교, 예를 들어, 내집단의 바람직한 정보와 외집단의 바람직한 정보간이나, 내집단의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와 외집단의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간의 판단에서보다는 집단내의 비교(내집단의 바람직한 정보와 내집단의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내의 비교 중에서도 외집단내보다는 내집단내에서 발생하였다. 이 같은 경향은 내외집단에 대한 평가와도 맥을 같이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그림 1 참조), 내외집단에 대한 평가의 편파는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귀인 역시 9점 척도상의 중간에 해당하는 5점 부근에서 판단이 이루어졌으며 내집단의 바람직한 정보만이 조금 더 기질적으로 판단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유추해 본다면, 지역감정이나 편견은 주로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시각보다는 자신의 속한 지역 즉, 내집단에 대한 선호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지역감정이나 편견이 발생하는 원인이 내외집단으로 범주화하는 사회적 범주화에 있다고 보고 두 개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1에서는 조사연구를 통하여 현재 우리 대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인상과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서울출신자를 제외 한 모든 지역 출신자들이 타지역에 비해 자신의 출신지역 사람들에 대해 더 좋게 평가하고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같은 자신의 출신지역인 내집단에 대한 선호적 평가와 자존감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정체감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연구 2에서는 지역감정 형성의 문제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로 자신의 출신지역을 내집단으로, 타지역 중 하나를 외집단으로 하여 이들 내외집단을 어떻게 평가하고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외집단에 비해 내집단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기억과 정보에 대한 귀인에 있어서도 내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판단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사람들이 왜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가능한 답을 준다. 즉, 내외집단 편파동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내집단을 더 선호하게 되고 좋을 것이라고 기대되며, 이 같은 기대와 동기 때문에 입력되는 정보를 편파적으로 기억하게 된다. 만약, 정보에 대한 기억편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별 정보에 대한 귀인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편견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내외집단 편파동기가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기억 측정방법 중 자유회상과 빈도추정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실험 결과에 따르면 측정방법에 따라 내외집단 편파현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빈도추정 방식을 이용한 경우에는, 가설을 지지하는 기억편파가 발생했지만, 자유회상 방법의 경우에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한 가능한 한 해석은 연구 방법론적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장의 길이 혹은 단어의 특성이 기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외집단에 할당되는 행동기술문의 회상가를 동등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렇지만, 긴 문장으로 구성되는 행동기술문들이 많이 제시되는 경우, 동등한 회상가를 잃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실험설계(예를 들면 제시되는 두 집단이 모두 외집단인 경우와 같이 통제집단을 사용)를 시도하여 이 같은 가능성을 배제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 2는 지역문제에 관한 연구로서 지역감정의 문제점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생들에게 자신이 속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정보를 대비되게 주었다. 이 같은 상황은 다소나마 연구가설을 쉽게 노출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조작검증을 통해 확인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요구특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 같은 지적은 Tajfel의 최소집단 파라다임을 이용한 초기 실험에서도 지적되어 왔던 문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경우, 이 같은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왜곡이 어려운 자

유회상보다는 왜곡이 쉬운 빈도추정이나 귀인과 같은 종속측정치에서만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얻어졌다는 사실에서도 그 개연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요구 특성의 영향이라는 비판은 다음에 제시된 분석을 통해 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험자들의 빈도추정과 내외집단 정보에 대한 자유회상에서의 편파정도, 그리고 귀인에서의 편파정도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때 편파정도는 내집단과 외집단 각각에서 바람직한 정보와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의 회상량과 귀인점수의 차이를 편파지수로 사용하였다 (예: 내집단의 바람직한 정보에 대한 회상량 - 내집단의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회상량). 그 결과, 외집단의 바람직한 정보에 대한 빈도추정과 외집단 정보에 대한 기억(자유회상)편파(외집단의 바람직한 정보에 대한 회상량 - 외집단의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회상량)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r = .234, p < .05$ , 내집단 정보에 대한 기억편파(내집단의 바람직한 정보에 대한 회상량 - 내집단의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회상량)와 내집단에 대한 귀인편파(내집단의 바람직한 정보에 대한 귀인 - 내집단의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귀인)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288, p < .01$ . 이것은 자유회상에서 비록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종속측정치들의 편파간에 상관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만일 요구 특성이 연구 2의 결과의 주원인이고, 따라서 피험자들이 주관적으로 왜곡하기 어려운 자유 회상 과제에서는 요구 특성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자유 회상 과제에서의 편파와 빈도 추정 과제에서의 편파간에 아무런 상관도 발견되지 않았어야 했다. 그러나 이 둘 간에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본 연구 2에서 나타난 결과가 요구특성이 아니라 내외집단 편파동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요구특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 예를 들어 내외집단을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한다거나 집단정체감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 - 실험설계를 통해 보다 명확한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

로 하였다. 이 같은 이유로 너무 서울 지역출신자들이 피험자로 편중되었으며 이외에도 충청도,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 출신 등 특정지역 출신자들이 주로 피험자로 참가했으며, 연구 2에서는 이들 지역이 주로 내집단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보다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출신지역이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험자들이 주로 대학생으로서 아직 실생활의 경험이 미흡하다 하겠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지역감정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좀 더 현실적인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지역감정을 경험했을 수 있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좀 더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학생들을 피험자로 한다면 하더라도 각 지방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한다면, 좀 더 역동적이고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내외집단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고 단순한 범주화의 영향을 행동기술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지역의 단서가 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행동기술문의 정보보다는 다른 단서들에 의해서 시작될 때가 많다. 미국의 예를 든다면,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피부색이 사람들을 범주화 해주는 두드러진 특징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유일한 지역 특징은 언어적 차이일 것이다. 표준어 사용을 통해 이 같은 특징이 많이 사라지는 했지만, 방언과 사투리 등 언어적 요소는 여전히 지역을 나타내주는 주요한 특징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언어와 지역감정 혹은 언어와 사회정체감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역감정의 문제를 해결하기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으며, 어떤 해결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도 출신자에 대해 가장 좋게 평가하며, 전라도 출신자를 덜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몇 년 전의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 영호남간의 지역갈등 양상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었으나 강원과 충청 지역의

소외감이 깊어 가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중앙일보, 1999년 7월 28일자: 홍기원(2000) 연구에서 재인용). 그렇기 때문에 지역감정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연구되어야 한다. 더욱이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된다면 남한과 북한이라는 또 다른 지역적 요소가 존재하게 된다. 즉, 남북 통일 후에 남북 지역간의 갈등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갈등 즉, 집단간 갈등에 기본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진국(1988). 지역감정의 실상과 그 해소방안.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pp. 221-253). 서울: 성원사.
- 김혜숙(1988). 지역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 - 세대간 전이가 존재하는가? -.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pp. 123-169). 서울: 성원사.
- 동아일보(2001. 7. 30). 영호남 고교생 절반이상 “지역감정 존재”.
- 민경환(1988). 집단간 갈등 - 그 병리의 이해와 처방.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pp. 91-121). 서울: 성원사.
- 박수애(1991). 사회적 범주의 변이성 지각: 두가지 정보처리과정(온라인과 기억근거)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관재(1992). 지각적 특출성과 내외집단편파가 개인의 착각상관에 미치는 영향 - 기억추론과 온라인추론과정의 비교 -.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송관재, 이훈구(1991). 특질 유사성 측정방법이 특질의 지각된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6, 32-46.
- 안신호(1988). 집단 고정관념 형성에 있어서의 감정과 인지의 효과.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pp. 15-65). 서울: 성원사.
- 안완기(1999). 국민의 정부 하에서 지역감정 해소방안: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정치 정보연구, 2, 211-236.

- 이수원(1988). 집단 고정관념의 변화.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pp. 67-89). 서울: 성원사.
- 이종숙(1991). 최소집단 상황에서 집단구분과 집단간 차별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 47-57.
- 조지선(1992). 고정관념과 개인적 관여가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중앙일보(1999. 7.28) 신지역주의 현상.
- 한국심리학회 편(1988).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서울: 성원사.
- 한규석(1995).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홍기원(2000). 집단소속감, 평가방법 및 정보의 공개가 내외집단원의 수행성과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 167-179.
- 홍영오(1991). 착각적 상관이 집단 지각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일반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영오, 이훈구(2001). 암묵적 연합검사에 의한 지역 편견의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 185-204.
- Baron, R. A. & Byrne, D.(1991). *Social psychology: Understanding human interaction*, 6th ed.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 Brewer, M. B.(1979). In-group bias in the minimal intergroup situation: A cognitive-motivation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86, 307-324.
- Brewer, M. B., & Kramer, R. M.(1985). The psychology of intergroup attitude and behavior. In M. R. Rosenzweig & L. W. Porter(Eds). *Annual Review of Psychology*(Vol. 36, pp. 219-43).
- Dovidio, J. F., & Gaertner, S. L.(1993). Stereotypes and evaluative intergroup bias. In D. M. Mackie & D. L. Hamilton(Eds.) *Affect, cognition, and stereotyping: Interactive processes in group perception*(pp. 167-193). San Diego, CA: Academic Press, Inc.
- Hewstone, M. Bond, M. H., & Wan, K.(1983). Social facts and social attributions: The explanation of intergroup differences in Hong Kong. *Social Cognition*, 2, 142-157.
- Hewstone, M., Jaspers, J., & Lalljee, M.(1982). Social representation, social attribution, and social identity: The intergroup images of "public" and "comprehensive" schoolboy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 241-269.
- Higgins, E. T., & Bargh, J. A.(1987). Social cognition and social perception. In M. R. Rosenweig, & L. W. Porter(Ed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38, pp. 369-425). Palo Alto, CA: Annual Reviews.
- Howard, J. W., & Rothbart, M.(1980). Social categorization and memory for in-group and out-group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301-310.
- Kihlstrom, J. F., Cantor, Albright, J. S., Chew, B. R., Klein, S. B., & Niedenthal, P. M.(1988). Information processing and the study of the self.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21, pp. 145-180). New York: AC.
- Lemyre, L., & Smith, P. M.(1985). Intergroup discrimination and self-esteem in the minimal group paradig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660-670.
- Linville, P. W., Fischer, G. W., & Salovey, P.(1989). Perceived distributions of the characteristics of in-group and out-group members: Empirical evidence and a computer sim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65-188.
- Mackie, D. M., & Hamilton, D. L.(1993). *Affect, cognition, and stereotyping: Interactive processes in group perception*. New York: AC.
- Messick, D. M., & Macike, D. M.(1989). Intergroup relation. In M. R. Rosenzweig & L. W. Porter (Eds). *Annual Review of Psychology*(Vol. 40, pp. 45-81).
- Oakes, P., & Turner, J.(1980). Social categorization and

- intergroup behavior: Does minimal intergroup discrimination make social identity more positiv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 295-302.
- Perdue, C. W., Dovidio, J. F., Gurtman, M. B., & Tyler, R. B.(1990). "Us" and "Them":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process of inter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475-486.
- Rabbie, J. M. & Horwitz, M.(1969). Arousal of ingroup-outgroup bias by a chance win or lo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3, 269-277.
- Schaller, M., & Maass, A.(1989). Illusory correlation and social categorization: Toward an integration of motivational and cognitive factors in stereotype formation. *Journa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709-721.
- Tajfel, H.(1970). Experiments in intergroup discrimination. *Scientific American*, 223, 96-102.
- Tajfel, H.(1978).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 New York: Academic Press.
- Tajfel H.(1982).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jfel, H., Billig, M., Bundy, R., & Flament, C.(1971). Social categorization and intergroup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 149-178.
- Taylor, D. M., & Jaggi, V.(1974). Ethnocentrism and causal attribution in a South Indian contex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5, 162-171.
- Taylor, S. E., & Brown, J. D.(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2), 193-210.
- Tennen, A., & Herzberger, S.(1987). Depression, self-esteem and the absence of self-protective attribution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72-80.
- Turner, J. C.(1983). Some comments on ... "the measurement of social orientations in the minimal group paradigm."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 315-367.
- Wang, H., & McKillip, J.(1978). Ethnic identification and judgements of an accid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 296-299.
- Wilder, D. A.(1986). Social categorization: Implications for creation and reduction of intergroup bias.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pp. 291-355). Orlando, FL: Academic Press.



부 록

연구 2에서 사용된 행동기술문

바람직한 행동

새로 이사온 이웃을 먼저 찾아가 인사를 하였다.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고 가는 사람과 우산을 같이 썼다.  
저녁을 먹은 뒤 할머니를 부축하고 산책을 하였다.  
상품개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밤늦게 까지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었다.  
운전 중 양보해준 운전자에게 손으로 인사를 했다.  
이사가는 친구의 집에 가서 이사짐을 날라주었다.  
입원한 친구를 위해 강의노트를 가져다 주었다.  
거스름돈을 많이 받은 것을 알고 돌려 주었다.  
바이러스에 걸린 컴퓨터를 고쳐주었다.  
대학 고급 교양영어 시험에서 A를 받았다.  
길을 묻는 사람에게 약도를 그려주었다.

비바람직한 행동

어쩔 수 없이 참석한 전체모임이라 구석에서 술만 마셨다.  
자리를 잡기 위해 남들을 밀치고 버스에 올라탔다.  
친한 친구와 사소한 일로 다툰 뒤 말도 않고 지낸다.  
학점이 좋지 않아서 학사경고를 받았다.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위반하여 달렸다.  
기분이 나빠서 지나가던 강아지를 발로 찼다.  
전철에서 우연히 만난 동창을 모른 척 하고 그냥 지나쳤다.  
시험을 보기 위해 컨닝페이퍼를 만들었다.  
내용 파악도 않고 교과서를 무조건 외웠다.  
모임에서 노래 부르기 싫어서 자리를 피했다.  
집을 방문한 세일즈맨을 모욕했다.  
교통사고를 당한 친구 병문안을 가지 않았다.

## The Influence of Social Categorization on Regional Prejudice Formation

Beom Jun Kim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Behavior,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research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social categorization on regional prejudice formation. In study 1, college students' impression on seven regions (Seoul, Gyunggi, Gangwon, Chungchung, Gyungsang, Jeolla, Jeju) and preference for those regions were surveyed. The result showed that students evaluated people from their home-region more positively than people from other areas. Such evaluation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ir self-esteem, confirming the Social Identity Theory. Study 2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in-group/out-group regional categorization on memory, attribution and evaluation on in-group/out-group.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in-group/out-group categorization biased memory, attribution, and evaluation on in-group/out-group. Finally,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regional prejudice, social identity, in/out-group categorization, stereotype

원고 접수: 2002년 1월 9일

심사 통과: 2002년 2월 5일